

마약 밀반입해 유통·판매 태국인 일당 32명 무더기 구속

대포차로 전국 돌며 외국인 근로자 대상 판매
필로폰 2억2000만원·야바 2300만원치 압수도

무등록 차량(대포차)을 이용해 전국을 돌며 마약류를 유통·판매한 태국인 총체과 판매책 일당 32명이 무더기 구속됐다. 전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를 밀반입해 대량 유통·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태국인 총체 A(33)씨 등 3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불법체류 신분인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필로폰과 야바를 국내로 밀반입해 국내 체류 중인 태국인 등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경찰의 주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차를 이용해 전국을 돌아다니는 대면 방식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마약류

를 유통·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2억 2000만원 상당의 필로폰 67.73g과 2300만원 상당의 야바 467정을 압수했다. 또 판매책 B(33)씨의 대포 차량에 보관돼 있던 무허가 사제공기총도 압수했다.

경찰은 국정원·출입국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불법체류 외국인이 마약을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 합동단속을 벌였다. 소매 판매책을 검거한 경찰은 수사를 확대해 경기,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등에서 이들을 차례로 붙잡았다.

경찰은 태국 마약류 공급책에 대해 국제공조를 요청해 추적에 나서는 한편 공범과 투약 사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남경찰청은 올해 3월부터 이달까지 상



전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마약류를 밀반입해 대량 유통·판매한태국인 일당으로부터압수한필로폰과야바.

반기 국제범죄 특별단속 기간 마약류를 유통·판매한 조직원 등 44명(구속 32명·불구속 12명)과 반입금지 해외 의약품을

동남아 식품마트에 공급·판매한 64명(불구속) 등 총 108명을 검거했다.

/오권철 기자



광주 우치동물원, ‘호남권 국가 거점동물원’ 지정 동물 질병·안전관리, 종 보전·증식, 야생동물 긴급보호 등 수행

광주 우치동물원이 호남권을 대표하는 ‘국가 거점동물원’으로 지정, 호남권역 동물 치료와 보호 중심지로 거듭난다.

광주광역시 우치공원관리사무소는 우치동물원이 환경부로부터 ‘제2호 국가 거점동물원’으로 지정, 7월 1일부터 운영된다.

거점동물원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신설된 제도로, 정부 예산을 받아 권역별로 ▲동물원 동물 질병관리 ▲안전관리 ▲종 보전 및 증식 ▲동물원 역량 강화 교육·홍보 ▲야생동물 긴급보호 등을 수행하게 된다.

환경부장관이 수도권·중부권·영남권·호남권 등 전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해 지정한다. 지정된 거점동물원은 연간 약 3억원의 국고보조금을 5년간 지원받는다.

우치동물원은 앞서 지난 16일 환경부와 야생동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방문, 거점동물원 역할 수행을 위한 인프라와 전문성 등에 대해 현장 실사를 거쳐 호남권 거점동물원

으로 지정됐다.

호남권 거점동물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우치동물원은 호남권역 동물원 동물들을 직접 진료와 전문 자문 등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우치동물원은 전문진료 역량을 바탕으로 멸종위기 동물을 포함한 다양한 동물들을 치료해 주목받았다. 세계 최초 앵무새 티타늄 인공부리 수술, 기형 설가타육지거북이의 인공 복갑 개수술, 제주도 ‘화조원’에서 의뢰받은 알락꼬리여우원숭이 ‘오공이’의 팔 골절 수술 성공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진료 성과와 동물복지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동물복지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우치동물원은 또 동물 구조에도 힘써왔다. 열악한 환경에 있던 호랑이, 농가에서 사육되던 반달가슴곰,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보호 중인 수달 등에 적절한 보금자리를 제공했다. 올해에는 경기도 부천의 한 실내동물원에서 구조한 호랑이 ‘호광이’에게 좋은 환경을 선물했다.

/전민규 기자

전남의 교육 리더들과 청년 교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학령인구 위기 극복의 해법을 모색한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오는 7월 14~15일 이틀간 ‘2025. 전남 작은학교 교육공동체 아고라’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학교 현장을 이끄는 리더들과 미래를 책임질 청년 교직원들이 함께 모여, 교육의 지속가능성과 위기 극복 전략을 고민하고 실천적 대안을 도출하는 자리다.

먼저, 14일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작은학교 리더그림 역량 강화 연찬회’가 열린다. 연찬회에는 전남 각 지역의 작은학교 관리자들이 모여, 학령인구

전남 청년 교직원들 ‘학령인구감소’ 위기 극복 해법 찾는다 전남교육청, 14~15일 ‘2025 작은학교 교육공동체 아고라’ 개최

감소에 대응하는 지역 맞춤형 교육 모델을 논의한다.

이튿날인 15일에는 현장주도형 정책 제안 행사인 ‘2545 청년교직원과 함께하는 원탁토론’이 목포시네마MM에서 개최된다. 원탁토론에서는 25세부터 45세까지 전남교육청 소속 청년 교직원들이 주체가 되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전문가와 함께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해법을 고민한다.

이번에 참여하는 청년 교직원들은

‘2545 청년교직원 토론패널 공개 모집’ 정책 제안서 공모 심사를 통해 선발된 이들로, ▲ 녹동고등학교 교사 정선렬 ▲ 장흥안양중학교 교사 김건일 ▲ 음천초등학교 교사 박동진 ▲ 전라남도교육청 예산과 차승빈 주무관 등이다. 이들과 함께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 한국교육개발원 권순형 박사, 구수대학교 모토카네 마사히로 교수, 최현 교육협력관이 토론패널로 참여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 자리에서는 전남글로벌 인재 인증제, 기초정원제 기반 통합학교 운영, 유학특구 지정, 지원정별 선택교과 순회교사제도 등 다양한 현장 기반 정책을 제안할 계획이다.

전남교육청은 ‘2545 청년교직원과 함께하는 원탁토론’영상을 촬영하여 유튜브로 송출하고 모든 교육공동체가 시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문태홍 정책국장은 “청년 교직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함께하는 교육정책을 실현하고,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교육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염선호 기자

보건의료노조 “조선대병원 행정동 강제이전? 시대 역주행”

광주 조선대학교병원 노동조합이 최근 불거진 행정사무실 장례식장 강제 이전과 불법 도청, 인사 개입 의혹 등에 대해 시대적 역행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선대학교병원지부는 30일 오전 광주 동구 조선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병원은 직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병원은 상급종합병원 평가 항목과 국가 예산 지원을 이유로 들며 의사당직실을 위해 본관 8층 행정동을 옆 건물 장례식장 2층으로 강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전공의 수련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국비와 자체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며 평가 항목이 아니다. 수련 환경

개선사업을 앞세워 퇴직 후 재임용된 임상전문교수 등 당직자를 만드는 등 특정교수를 위한 배려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불법 도청 의혹에 대한 병원 측의 엄정대응도 촉구했다. 노조는 “올해 3월 부서장이 직원들을 불법 도청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가해자와 피해자는 지금도 같은 층에서 근무하고 있다. 도청을 당한 부서원들은 오가다 가해자를 마주칠까 불안에 떨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불법 도청은 1년 이상 실행을 받을 수 있는 중대범죄다. 병원은 사건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한정하지 말고, 불법 도청한 부서장을 직무 정지하고 대기발령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개입 문제도 거론하며 “최근 간호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선대학교병원지부가 30일 오전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대병원을 규탄하고 있다.

부 정기 인사로 부서를 발령받은 한 간호사는 해당 진료과 요청으로 다른 부서로 파견 조치 됐고 다른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조선대병원의 시간은 거꾸로 시대를 역주행하고 있다. 논란 중인 사안들에 대해 조속한 사과와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송현근 기자

광주시상청, ‘폭염 취약성 정보 통합 서비스’ 개발 추진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지역 폭염 정책 수립과 효과적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폭염 취약성 정보 통합서비스’ 개발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광주시상청은 광주기후에너지지흥원 도시 평가모델 시스템의 AI 기반 폭염예측과 연계, 통합서비스를 개발·구축한다.

우선 위성 영상과 인공지능(AI) 기법을 활용해 광주지역 기온 분포를 30m 격자단위로 상세화하고 지표 특성을 반영한 상세 열 지도를 제작한다.

도심에서도 건물, 도로, 녹지 등 토지피복 유형에 따라 열 분포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열 지도를 활용해 폭염 주요 구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고령 인구 비율, 건축물의 노후도, 응급

의료기관 접근성, 무더위 쉼터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폭염 취약성 지도도 산출한다. 행정동·집계구 단위 폭염 취약 지도를 제작, 우선 대응이 필요한 지역을 제시할 계획이다.

광주시상청은 해당 서비스를 폭염 대응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시민들에게는 실시간 폭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함동주 광주기상청장은 “21세기 후반 광주의 폭염일수는 현재보다 최소 33일, 최대 97일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폭염 취약지를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폭염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원 기자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